

성 김대건 안드리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2020년9월20일 (제1961호)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3:1-9 제2독서 로마서 8:31-39 복음 루카 9:23-26

◎말씀 < 순교자들의 신앙 >

성 김대건 안드리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삶을 기리며 순교 정신을 본받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순교로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 집안입니다.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 역시 가족들이 신앙의 증거자이고 박해 때문에 사제가 순교하자,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투신하신 분입니다. 역관의 종으로 위장하여 조선과 북경을 9차례 왕래하였고, 의주 변문까지는 11차례 왕래하여 주교님과 사제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모셨습니다. 조선이 독립교구가 되기를 바라며, 교황청에 청원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뜻을 이루어 모셔온 사제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동료 순교자분들 역시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겼고 그 증거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박해 시대 자신의 삶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증거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입니다.” (지혜3,9)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합니다. 순교자분들이 간직한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합니다. 순교자분들이 간직한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외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 주님께 대한 신뢰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깊게 형성됩니다. 이것이 복음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 순간에 순교로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었습니다. 그 단련으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주님이, 내 마음 첫 자리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순교의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에 신앙을 오히려 타협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익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도 편리하게 재해석합니다. 또 하나의 유혹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사에 대한 절실함이 얼마나 클까? 기도의 삶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활동적인 무엇이 아니라, 선조들이 지켜오고 물려준 신앙의 정신을 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며,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현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의 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순교자분들의 삶이 되새기며, 말씀으로 끊임없이 단련된 그분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도 깊어지기를.. 이부분을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9월22일(화)	연중 제25주간 화요일		교무금 주일헌금	\$ 1,400.00 \$ 414.00
9월23일(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150.00 \$ 80.00
9월24일(목)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성물방	\$ 80.00 \$ 00.00
9월25일(금)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ACA Rebates	\$ 00.00 \$ 680.00
9월26일(토)	연중 제25주간 토요일		합 계	\$ 2,804.00
9월27일(일)	연중 제26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43명
교무금 봉헌자	이상기. 양경민(6-9월) 장호길(3-7월) 안강순(9월) 정영규(10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약상을 전해 줍니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가르침을 선포하며, 같은 전례를 행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믿음으로 사랑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믿을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 사도들에게서 전수받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간추려 입교예식과 전례 중 신앙고백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3백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여러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례 중에 사용하는 사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인 교회’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보살핌으로 한결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은 하나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모두가 같은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으로 모으신 겨레이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나라이며,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란 신앙의 내용과 공동 예배 예식인 전례가 사도로부터 전승된 것이며 특히 교회 통치가 사도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인 로마 주교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관할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같은 전례를 거행하며 로마 주교, 즉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모시는 특성을 가지는 교회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 특성을 종합한 것이 ‘가톨릭’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보편되다’라는 의미의 옛말 ‘공번되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온 것”이 바로 공번된 것, 가톨릭의 신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김도철.베드로 영육건강	김진영.말따
생	(본당의날) 본당 교우들의 영육간 건강	김귀태.안셀모	생	장익제.사도요한 가정 장정원.안나 영육건강	김진영.말따

간  
장  
중  
지

◎천상의 순교자◎

진리의 믿음 위해 피 흘리며 생명 바친  
순교한 우리 선조들의 뜨겁게 아픈 신심이어  
오늘 우리들 부끄러운 가슴에 환희 들어오소서  
그 용기, 그 불굴의 영혼, 그 영원한 천상의 길이어.

마종기 노렌조.시인, 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b>에어컨 수리</b></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최병엽공인회계사</b></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b></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b>게스관광</b></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a href="http://www.guesstour.com">www.guesstour.com</a></p>	<p><b>Suzie Hair World</b></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b>CHECK 발행하실 때</b></p> <p><b>Payee to:</b> <b>St.J.H.C</b></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실외미사로 인한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성당서편 정자)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실외미사 준비 및 안내  
실외미사 집전과 신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 3.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 4.어린이 놀이기구 축성식  
일시:20일(일) 오전10시. 교중미사후  
놀이기구 교체를 위해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본당의 날(9월20일)  
COVID-19로 행사는 없습니다. 교우들의 건강  
과 교회발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6.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일시:27일(일)오전10시.교중미사  
현상상황과 안전을 위해 차례음식과 가족분향 및  
연도는 생략합니다. 조상님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26일(토)오전까지 신청바랍니다.  
(신청: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 7.신자 주소록 (9월말에 마감합니다)  
수정사항은 구역장 또는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8.St. Mary's묘소 한국섹션 근무자 모집  
주요업무:한국세션 홍보 및판촉(한국.영어가능  
사무실제공하며 주2회 2시간이상근무  
문의:고원석 연령회장(916-813-4440)
- 9.마스크 필요하신분은 연락해주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눈 물로 씨 뿌리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 라

전례봉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20일)	연중제26주일(9월27일)	연중제27주일(10월4일)	연중제28주일(10월11일)
복 사	최진호.다니엘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